

무주군, '2050 미래비전' 제시 오감으로 배우는 농업 체험 인기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우주 중심도시 무주' 핵심 추진

무주군이 6월 30일 기본사회 실현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2050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군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우주 중심도시 무주'를 핵심으로 하는 '2050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군은 오는 2050년까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무주형 기본사회 실현과 항공우주산업 중심 미래산업 육성 체류형 관광휴양도시 조성 청정기차 기반 농업경쟁력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한다.

또 현대로템을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산업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관광과 농업을 지역발전의 양대 축으로 육성해 균형 있는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3월 착수한 '무주군 미래비전 205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6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항공우주 중심도시 무주'를 핵심으로 하는 '2050 미래비전'을 발표했다.

정책 환경 변화와 인구 위기 주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6개 측면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 설문과 전문가 자문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2050 미래비전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군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와 항공우주 중심도

시를 실현해 가장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민선 9기 출범일인 7월 1일 전통생활문화재단에서 '2050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마을구심체와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와 미래비전 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손홍기 기자

진안군 실증시험포, 어린이 자연체험 학습장 호응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실증시험포가 어린이들의 오감 만족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7개소 원아 110여 명을 대상으로 블루베리 수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이들은 직접 블루베리를 수확하며 농산물이 자라는 과정을 배우고 수확의 기쁨을 경험했다. 이어 실증시험포 내 원예식물관에서는 유칼립투스과 다육식물, 선인장 등 150여 종의 다양한 식물을 관찰했으며, 아열대 온실에서는 애플망고와 한라봉, 파파야 등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물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는 호기심을 키웠다.

또한 토끼 먹이주기 체험을 통해 동물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자연과 농업을 친숙하게 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는 새로운 농업기술과 품종을 실증하는 공간인 동시에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은 물론 어린이 체험학습, 귀농·귀촌인 교육, 외국 농업공무원 연수 등 다양한 계층이 찾는 농업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계절별로 다양한 농작물과 식물을 관찰할 수 있어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실증시험포 견학을 희망하는 단체나 기관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미래농업팀(063-430-8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금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실증시험포는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공간을 넘어 군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연과 농업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앞으로 조성될 치유농업 경관단지과 연계해 농업의 교육적·치유적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합 체험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영유아 수족구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진안군, 올바른 손 씻기·개인위생 실천 중요

진안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여름철 대표 감염병인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지속 확산하고 있어 보호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생활 시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와 엔테로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한다. 감염 후 3~5일의 잠복기를 거쳐 미열, 인후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입안과 손, 발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감염자의 침, 콧물, 가래, 대변 등의 분비물과 직접 접촉하거나 기침·재채기 등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공용 물품을 통한 간접 접촉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단체생활 시설에서는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환자는 3~7일 이내 자연 호전되지만 입 안의 통증으로 음식과 수분 섭취가 어려워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아이가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거나 입술이 마르고 눈물이 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또한 드물게 고열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인 구토, 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경우 뇌수막염, 뇌염, 심공동 물품 등을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다.

현재 수족구병은 예방백신이나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올바른 손 씻기와 개인위생 관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외출 후와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기저귀 교체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난감과 놀이기구 등도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퇴직 공무원 3명 장학금 150만원 기탁

무주군 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직원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하며 의미 있는 공적 마무리를 했다.

무주군은 올해 상반기 퇴직하는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환경미화원 정인수 주무관, 무풍면 행정복지센터 개발팀 환경미화원 최복운 주무관, 보건의료원 식당 조리원 주화성 주무관이 6월 30일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15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은 퇴직을 맞아 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장학금을 전달했다.

퇴직자들은 "오랜 시간 무주군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동료들의 관심 속에서 무탈하게 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며 "그동안 받은 사랑에 비해 작은 정성이지만 무주군 인재 육성에 든든한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인수 주무관은 2000년부터, 최복운 주무관은 2008년부터 각각 무주군청 환경미화 업무를 맡아 지역 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주화성 주무관은 2013년부터 보건의료원 식당에서 근무하며 직원과 군민의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해 왔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교원 치유 클래식 콘서트 개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관)은 지난 6월 26일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치유 클래식 콘서트 '힘, 그리고 음악이 주는 위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활동으로 지친 교원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심리·정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힘과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연은 실내악 연주단체 '누오보 챔버 플레이어스'가 말라클래시 명곡과 영화 OST 등 귀에 익숙한 선율을 선보였다.

관객과 소통하는 해설을 곁들인 공연은 참석한 교원들에게 편안한 휴식과 감동을 전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

진안군은 오는 7월 13일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앞두고 6월 30일 장수군을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경영 부군수를 비롯해 기획홍보실장, 기본소득TF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수군 부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부군수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과정에서의 운영 노하우와 신청·접수 체계, 실거주 확인 방법, 민원 대응 사례, 지급 절차,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업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사례와 효율적인 행정 운영 방안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장수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먼저 시행한 지자체로, 제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다양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군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현장에서 검증된 운영 방식을 공유 받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군은 오는 7월 2일부터 10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의 취지와 신청방법, 지급 기준 및 사용자 등을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3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고, 자격 확인과 심의를 거쳐 8월 말부터 첫 지급을 시작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장수군은 6월 30일 군청 소통회의실에서 최훈식 장수군수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 현장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복지 수요 증가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복지

행정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과 복합적인 복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방안,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기구 지원 강화, 복지 민원 응대 과정에서 어려움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의견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복지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



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